

미리보는 '5·18 38주년 기념식' 행사

18분 간 뮤지컬 형식 기념공연 행불자 유족도 참여할듯

지난해처럼 국민개방형 아닌 초청인·사전신청자만 참석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15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께부터 50분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 민주묘지에서 '오월광주, 정의의 세우다'를 주제로 38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5·18 기념식은 추모공연·현화·분향에 이어 경과보고·국민의례·기념사·기념공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 시민사회단체, 각계 대표, 5·18유공자·유족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5·18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의미 등을 참석자들에게 밝히는 경과보고는 5·18 단체장이 맡는다.

뮤지컬 배우 민우혁씨가 '부치지 않은 편지'를 독창하며 추모공연을 이끈다.

기념공연은 18분 동안 영화와 드라마를 결합한 장르인 '시네라마 형식'으로 펼쳐진다. 이는 기념식에서 처음 시도되는 장르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대중영화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 등의 특정 장면과 당시 희생자·행불자의 사연을 재구성,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선보인다.

'꽃다 핀 꽃 한송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고(故) 이창현(당시 6세) 군의 아버지가 공연에 직접 참여해 사연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최미애·

김경철·윤상원·박관현·이창현 열사 묘역을 중심으로 참배가 진행된다.

앞서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9시50분까지 식전 공연이 열린다. 참석자들은 '광야에서, 그날들, 바위섬, 저녁에게' 등을 합창한다.

오전 9시58분에는 이낙연 총리, 피우진 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유영방안소에서 현화·묵념하며 오월 영령의 희생 정신을 기린 뒤 기념식장으로 이동한다.

식전 행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단체장의 경과보고는 지난해 기념식부터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5·18기념식에서 식전 행사를 없앴고 2009년부터 광주보훈청장과 민주묘지 관리소장 등이 경과보고를 맡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 유족과 민주화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올해 기념식은 추모객 누구나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입장했던 지난해와 달리 초청인과 사전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약 1만 명이 참석(역대 최대)했던 것과 달리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 있지만, 약 10분 가량의 기념식 시간 확대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식 주제 또한 지난해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에서 올해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로 이어지며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에도 정부가 그 의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밝힐지 주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치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배연기 자욱했던 kt광주타워, 금연구역 변신

그동안 애연가들의 흡연구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kt 광주타워 광장(이하 kt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kt 광장은 그동안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로 인해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고통에 시달려왔다. 특히 인근에 서석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동구는 '동구 두드림'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된 흡연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kt 전남지사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kt 광장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동구와 kt는 그동안 애연가들에게 흡연을 유도했던 kt 광장에서의 흡연구역 표시와 재떨이형 휴지통을 제거하는 한편 4월 30일부터 kt 광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서구, 풍암호수 장미원 개장

50만 송이 장미가 향연을 펼칠 서구 풍암호수 장미원이 16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010년 조성된 풍암호수 장미원에는 장미 꽃과 잎 모양을 형상화한 5,640㎡의 면적에 총 140여종 2만 여주의 다양한 장미가 식재되어 있다. 특히, 2.2km에 이르는 풍암호수 일주 산책로를 따라 텃밭장미가 식재되어 있어,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미원을 조성하기 위해 500여주의 장미를 보식하고 비료,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서구청 SNS를 통해 '풍암호수 장미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남구, 인권·근대 건축·자연 인문학으로 선보여

광주 남구는 15일 "오는 6월부터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정보도서관과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 현장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에서 남구 관내에 있는 문화정보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등 3곳의 공공도서관이 사업 수행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와 토론, 탐방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문학을 향유토록 함으로써 자신과 역사에 대해 성찰하고 나아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구,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박차

광주 북구가 말바우 시장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감성과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북구는 말바우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고유자원과 전통시장이 함께 어우러진 '감성과 매력'이 넘치는 말바우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 등에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연계해 쇼핑과 관광,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광산구, 가로환경관리원 안전교육 실시

10일 광산구가 송정동 가로환경관리원 안전교육장에서 구 소속 가로환경관리원 67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현장근무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스스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는 능력을 기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강현 차장은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안전의식 생활화'를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

모두니돌김 '신풍1호' 신제품 등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7년 연구 끝 개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모두니돌김 일종인 '신풍1호'를 2011년부터 7년 연구 끝에 신제품으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4년 만에 갯병에 강하고 품질이 좋은 우량 종자 '신풍1호'를 개발했다.

2015년 품종 출현해 3년 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시험과 실험을 거쳐 이번에 등록이 완료됐다.

'신풍1호'는 성장이 빠르고 김양식 종이기인 4월까지 염채 활력과 색택이 유지되는 품종에서 어업인들이 선호한다.

맛과 식감(씹는 맛)이 뛰어나 수요가 날로 늘고 있다. 또 자란,

김정환 기자

광주은행 신입행원 대학추천제

'폐지'...지역출신 불이익 우려

은행권이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도 기존의 대학추천제를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채용비리가 불거지자 전국은행연합회가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면접관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채용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의 개선안을 토대로 다음 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부터 준

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기존에 시행했던 대학추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역출신 인재들의 진입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매년 30~50명 가량을 대학추천제 채용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80~90% 가량 할당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 일정과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출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나주 · 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대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 지정·건설 폐기물 처 ▶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